

女性研究

The Women's Studies

2014. Vol. 87 No. 2 pp. 317~ 347

## 청년여성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결정요인

강 순 희

## 청년여성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결정요인

강순희\*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청년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들의 초기 노동시장 진입 및 이행을 동학적으로 살펴보고, 노동시장 이행 시 각 경제활동상태의 결정요인을 학력별 차이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발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07년부터 2011년 동안 두 해 사이마다의 이행을 분석한 결과, 경력형성 초기부터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청년들의 상태변화의 과정을 동태적으로 살펴본 바에서도 고교 졸업 후 바로 상급학교 진학으로 이행함에서는 남녀 간 차이가 없으나, 여성의 경우 일단 대학진학을 미룰 경우 노동시장이나 비경제활동 상태로 계속 머무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비율은 남자보다 높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등 미취업 상태로 이행하는 경우는 남자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역시 남자의 경우 고교 졸업 후 군 입대나 대학진학 준비 등으로 비경제활동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여자의 경우 취업한 일자리가 임금수준이나 고용안정성 등에서 양호한 일자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고졸 여성의 고용성고가 남성보다 좋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청년여성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 미혼일수록, 남편이 임금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일수록 경제활동참가 확률이 높아지며,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가 임금근로자,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경제활동참가 확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고졸자나 대졸자 모두에게 동일하다. 아버지의 취업이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추후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가구원 수는 일정하게 자녀수 등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경제활동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년여성에게 있어서 학력에 따른 경제활동참가 행태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은 청년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향이 학력보다는 다른 개인적, 가족적 배경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참가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교수(soonhie kang@kgu.ac.kr)

결정에서는 학력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특징적인 결과이다. 취업 결정요인에서는, 고졸과 대졸 이상 모두에서 미혼일수록, 제조업과 서비스업일수록, 그리고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결혼하였을 경우에는 남편이 임금근로자일수록 취업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과는 달리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 가구원수 등 가구적 배경은 취업에는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다만, 연령과 가구총소득의 영향은 두 학력 간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임금근로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도 두 학력 수준 모두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미혼일수록, 제조업과 서비스업일수록, 그리고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결혼하였을 경우에는 남편이 임금근로자일수록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 가구소득이나 가구원수 등 가구적 배경은 임금근로자로의 취업에는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여성들의 자영업자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는데, 다른 결정요인과 달리 고졸여성과 대졸이상 여성 간에 일정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고졸 여성의 경우 연령은 영향을 못 미치고 있으나 대졸여성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자영업자로의 취업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아버지나 남편의 종사상 지위나 가구원수가 자영업 취업에 미치는 영향도 고졸과 대졸 이상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혼일수록, 가구 총소득이 높을수록 자영업자로 취업할 가능성은 고졸자와 대졸자 간에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먼저 여성의 경우 경력형성 초기부터 노동시장 이행의 지체가 발견되고 있어 선제적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고교는 물론 대학 내에서의 성인지적인 진로와 취업지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진로 멘토링제도의 도입, 일 경험 프로그램 또는 인턴제 등에서 여성의 특성 고려, 여성일반이나 중장년 여성 등에 맞추어져 있는 현행의 고용센터, 새일센터 등에서 청년여성 맞춤형 서비스 확충 등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향이 학력보다는 다른 개인적, 가족적 배경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기에 초기에 경제활동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력 이외의 개인적·가족적, 사회적 장애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누이 지적되어 왔던 결혼, 출산과 육아(본 연구에서는 가구원수가 일정한 대리변수)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참가의 제약을 해소하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선진국을 볼 때 남편의 육아분담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제고하는 중요한 대안 이기에 이에 대한 제도적 확대와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 이외로 청년여성들의 취업준비를 지원하고, 초기의 경력단절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청년여성 맞춤형 교육훈련, 자격증 취득에 대한 지원, 집중상담 프로그램 등을 기존 관련 제도를 청년여성 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 청년여성, 초기 노동시장 이행, 경제활동상태 결정요인, 학력 간 차이

## 1. 서론

노동여성의 고용률 제고가 화두가 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여성들을 대상으로 초기 경력형성경로, 특히 노동시장 진입 및 이행의 실태와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대표적인 문제는 청년과 여성 두 집단의 낮은 고용성과이다. 지금까지 여성고용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성고용의 문제로 낮은 고용률과 경제활동참여, 고용의 불안정성, 낮은 임금수준과 빈곤, 일자리 양극화 등 열악한 고용의 질, 그리고 그 근원의 상당 부분이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청년여성은 이러한 노동시장 문제에서 이중의 탓에 간혀있을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고용문제의 단초로서 청년여성, 즉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문제가 잉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여성의 고용문제 진단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에서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물론 이는 청년 실업과 유희화를 포함한 청년고용문제 일반에 대한 대안 모색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년여성의 고용문제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하여 왔다. 그간 여성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문제, 특히 경력단절과 재진입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청년노동시장에 대해서도 대졸자, 일부 고졸자 연구 등 학력별 분석에 주로 주목하여 왔을 뿐이다<sup>2)</sup>. 더구나 그간의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20대에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이러한 경제활동의 초기에는 남성과 유사한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다가 그 이후 30대 초반 연령부터 경제활동참가율은 급락하고 이렇게 감소한

1) 우리나라 여성고용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 전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전에도 여성의 노동시장문제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이는 주로 노동시장 일반을 분석함에 있어서 성별측면을 주목하는 정도였다. 여성고용문제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김태홍·양인숙·배호중 외(2013)에서 잘 정리하고 있다.

2) 청년여성의 고용문제에 본격적으로 주목한 연구는 김태홍·김종숙(2002), 김태홍·양인숙·배호중 외(2013), 신선미·민무숙·권소영·고혜원(2013) 정도이며, 다른 연구들은 연령별·성별분석 시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40대 이후 다시 높아지는 M자형을 보이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일부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참가 초기에는 여성의 노동시장 준비활동이나 성과 등의 지표에서도 남성에 비하여 낮지 않음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신선미·민무숙·권소영·고혜원(2013) 등).

이에 따라 여성은 물론 청년의 고용률 제고 등 고용성과를 올리기 위한 정책 모색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초기에 어떻게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정착하여 가는 지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행실태에 대한 정태적 분석뿐만 아니라 그 참가와 정착과정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이다. 특히 그간의 청년이나 노동시장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이행과 성과 등이 학력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여성 연구에서도 여성들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력단절이나 노동시장 진입과 이탈이 빈번하고, 이는 학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지적 등에서 볼 때<sup>3)</sup>, 청년여성, 즉 여성들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도 고학력자와 고졸 이하 저학력층간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에 학력별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구나 지난 정부 이후 최근까지 고졸 취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어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초기에 초점을 맞추어 고졸자와 대졸자 간에 그 이행실태와 성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이는 본 연구가 가지는 또 다른 목적이다.

이에 따라 보고는 먼저 청년여성들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실태를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태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나서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2007년의 초기 상태, 즉 중고등학생, 대학(원)생, 취업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그 이후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동태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청년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이행할 경우 노동

3) 이에 대해서는 국내외 연구에서 많이 지적하여 왔다. 예를 들면, 한국여성개발원의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여성 청년층의 취업이행 형태를 연구한 김태홍·김종숙(2002)에서는 노동시장 이행까지 최종학교를 졸업한 후 평균 1.54년이 걸리는데, 고졸여성 중 인문계졸업자의 취업이행이 가장 어렵고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으로 이행이 양호함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이족패널조사'를 이용하여 경력단절경험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분석한 장지현 외(2010)는 학력에 따라 구직경로와 직종 분포에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시장 참가와 취업,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상태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에 초점을 맞춘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자료이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 청년층 만 15~29세를 대상으로 학교생활, 직장경험, 직업관 및 향후 진로,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증, 구직활동, 가계배경 등에 관하여 매년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 자료로서 다른 자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풍부한 표본과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여성들의 학교로부터 노동시장 이행을 포함하여 노동시장 초기 경력형성의 과정을 동태적으로 파악하는데 적절한 자료라고 본다.

## 2. 선행연구와 연구문제

대학졸업자를 기준으로 보면, 남녀 간의 고등교육 참여 격차는 거의 좁혀졌다고 볼 수 있으며, 남녀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에 있어서도 그 격차는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 그간 남자가 훨씬 높았던 청년층 고용률은 2005년 이후 역전이 되어 여자가 더 높아졌으며<sup>4)</sup>, 주 취업연령인 25~29세 청년층의 경우에도 여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남자는 군 입대 등으로 하락하여 최근에는 그 격차가 3%p 대로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30대가 되면서 급격히 바뀌게 된다.

그간의 연구들에 의하면, 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들은 대부분 기혼이 되는 30대에 접어들면 고용률이 급격히 하락하는데, 이후에는 비경제활동상태에 오래동안 머물게 되는 L자형을 취하게 됨을 지적하고 있다. 고학력 여성들이 L자형으로 취업이 급하강하는 시점은 ‘결혼’과 ‘임신·출산’이라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김가을(2007), 김복순(2012), 김영옥(1999), 김영옥(2006), 김종숙·민무숙·김영옥 외(2013), 김태홍·김종숙(2002), 박수미(2003), 주무현·강민정(2008), 황수경·장지연(2003) 등). 또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시 이들의 취업

4) 2013년 현재 15~29세의 고용률은 39.7%인데, 남자는 38.1%에 비하여 여자는 41.3%이다(통계청(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은 학력과 경력단절 이전의 직업과 수입수준, 그리고 현재 접근 가능한 직종에 따라서 차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재취업한 여성의 약 31.7%는 전문직 및 준전문직으로 취업하는 반면, 단순노무직에는 약 9.8% 정도의 여성만이 재취업하고 있다(구명숙 외(2005)). 더구나 경력단절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에는 여성 집중 직종으로 분류되는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70% 이상인 일자리에 주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종숙·민무숙·김영옥 외(2013)), 김태홍·김종숙(2002) 등).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미국의 경우 고학력 여성들이 저학력 여성들보다 노동시장 복귀가 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반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 재취업 시기는 학력에 상관없거나 오히려 고학력 여성들이 저학력 여성들보다 더 늦게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박수미(2003), Klerman & Leibowitz(1999)). 이는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경우, 고학력 여성들에게, 특히 경력단절을 경험한 고학력 여성들에게 접근 가능한 직종이 다양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오은진 외(2009)).

여기에서 우리는 30대 이전 여성들, 특히 초기 노동시장이행은 어떠한지가 궁금해지게 된다. 여성들의 30대 이후의 경력단절을 포함한 노동시장 이행에서의 문제의 연원은 초기 경력형성 경로, 특히 노동시장 이행과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이행, 특히 생애주기와 경력단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성들이 초기에 노동시장 이행의 실태, 그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고 있지 않다. 청년여성에 초점을 맞춘 일부 연구에서도 정태적 분석 또는 첫 일자리 이행에만 주목하거나(김태홍·김종숙(2002)), 대졸여성의 취업준비활동에 초점을 맞추거나(신선미·민무숙·권소영·고혜원(2013)), 이미 재직 중인 임금근로자의 이직과 재취업의 동학을 분석하고 있을 뿐(김태홍·양인숙·배호중 외(2013)) 청년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행을 경제활동상태별로 학력별로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07년 기준 15~29세인 청년여성들을 대상으로 학교 졸업 이후 어떻게 노동시장으로 이행하고 정착하여 가는지를 재학과 경제활동상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고졸자와 대졸자를 나누어 비교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여성들의 상급학교 진학과 노동시장 이행 등 초기 경력형성경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이러한 청년여성들의 초기 경력형성경로는 고졸자와 대졸자 간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셋째, 청년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 취업, 그리고 취업 시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등 노동시장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이들은 학력 간에 어떻게 다른가?

### 3. 자료와 연구방법

#### 가. 자료

본고에서는 청년패널 제2차 조사인 YP2007의 1~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다만, 노동시장이행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YP2007의 2~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sup>5)</sup>. 청년패널조사는 우리나라 청년층 만 15~29세를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로, 학교생활, 직장경험, 직업관 및 향후 진로,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증, 구직활동, 가계배경 등에 관하여 매년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School to Work) 및 노동시장경로(Career Path)를 추적·조사함으로써 청년층 실업 문제 해결방안 제시 및 진로결정, 직업선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패널조사는 2001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2001년도 기준 청년층(만15~29세)으로 구축된 YP2001과 2007년도에 새로이 시작한 2007년 기준 청년층을 매년 추적 조사하는 YP2007의 두 개의 라운드가 있다. YP2001은 2001년도 예비조사를 토대로 2006년도까지 청년층 약 5천명에 대한 6차 추적조사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YP2007은 2007년도에 신규

5) 당초 결정요인 분석에서도 2007년 1차부터 5차 자료까지 연결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변수 가운데 1차 년도에는 조사가 되지 않은 항목이 있어 2차부터 5차까지만 이용하였다.



로 구축된 10,206명의 패넬을 대상으로 그 이후 매년 추적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7년 기준으로 만 15~29세인 청년여성이 된다.

## 나. 연구방법

이행을 분석하는 기초분석에서는 개인 아이디를 이용하여 매년의 조사 결과를 하나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한 패넬자료를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이 경우 매년 조사 과정에서의 탈락자가 발생하거나, 신규 조사자가 있음으로 인해 전체 데이터 셋이 개인별로 모든 기간의 조사결과가 존재하지는 않는 ‘불균형 패넬’(unbalanced panel)이 된다. 2007년 조사 시점의 응답유형에 따라 고등학생, 대학 및 대학원생, 취업자,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각 유형 응답자들이 그 이후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기에 2007년 이전의 실태와 2011년 이후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좌우측 절단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기술통계 분석에서는 먼저 청년들이 성별, 학력별로 두 해 동안 경제활동상태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하지만 이는 단지 직전 연도와와의 비교를 통한 것이어서 노동시장 이행의 동태를 온전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으로는 2007년 기준으로 응답유형별 2011년까지 그 이후 4년간의 상태변화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전체 청년들이 매년 어떠한 경력경로를 만들어나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청년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경력 이행 경로를 분석하여 전체 청년과 비교하였다.

한편 노동시장 이행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2008년도 이후 4개년도의 자료를 pooling하여<sup>6)</sup> 청년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 및 취업, 그리고 취업의 경우에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지를 이항 로짓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어느 한 해라도 경제활동참가자(취업자, 미취업자), 취업자(임금, 자영자)일 경우를 모두 합한 자료를 가지고, 선행연구

6) 패넬연결 시 누락변수가 많기에 분석에 유효한 표본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를 패넬이 아닌 합동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으로 인한 내생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2007년도의 경우 본 분석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의 누락이 많아 2008년도 이후 자료만을 합동(pooling)하여 분석하였다.

를 참고하여 인적 및 가구적 배경으로서 연령, 연령제곱, 아버지의 직업, 결혼여부, 결혼 시 남편의 경제활동상태, 가구소득, 가구원수<sup>7)</sup>를, 직무적 배경으로서 취업한 경우 산업과 사업체 규모를 설명변수로 채택하였다. 또한 각 년도의 경제적 상황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도더미를 포함하였다.

여기에서 경제활동 참여여부는 처음에는 한 달간의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변수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1, 2차 조사에서는 일주간의 경제활동 변수만 있어, 한 주 기준으로 경제활동 참여여부를 정의하였다. 미취업, 임금근로자, 자영업자를 종속변수로 한 다항 로짓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나누어 분석한 이유는 통상적으로 여성들의 경우 결혼과 출산, 양육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 진입과 취업에 있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라는 두 종사상 지위 간에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문유경(2002), 성지미(2001), 정진성·장지연(2001) 등).

## 4. 분석결과

### 가. 청년의 경제활동상태의 변화<sup>8)</sup>

청년여성들의 노동시장이행을 살펴보기 이전에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이들의 경력변동의 추이를 YP2007 1~5차 조사 자료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청년패널자료에서는 매년 응답자를 연계함으로써 시간의 추이에 따른 표본의 유형 변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school-to-work), 경제활동상태 간 변화 등 다양한 동태적 흐름을 분석할 수 있다.

먼저 <표 1>은 매년마다의 경제활동상태 이행(transition)을 보여주고 있다. 전년도 취업의 경우 다음 해 취업으로 이어지는 정도는 90% 전후를 보이고 있으며, 취업에서 실업으로는 평균 2.6%, 취업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이행은 8.2%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2차(2008년) → 3차(2009년)의 경우 취업에서 실업으로의 이행은 증가하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에서 취업으로의

7)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여성들의 진로결정에 있어 형제수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그 변수가 없어 가구원수(결혼 전에는 형제수, 결혼 후에는 출산여부와 자녀수를 일정 부분 대리하는 proxy)로 대체하였으며, 출생순서도 같은 이유로 포함하지 못하였다. 출산여부 역시 5차 년도에만 조사가 되어 사용하지 못하였다.

8) 본 내용은 『청년패널2007 5차 조사 기초분석보고서』의 통계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행이나, 비경황에서 취업으로의 이행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당시 국제금융위기 시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sup>9)</sup>.

〈표 1〉 청년의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 2007~2011년

(단위 : %)

이전상태	이후상태	1차 → 2차	2차 → 3차	3차 → 4차	4차 → 5차
취업	취업	88.3	88.6	90.1	89.9
	실업	2.7	3.5	2.2	2.1
	비경황	9.0	7.9	7.7	8.0
실업	취업	61.5	55.1	61.9	60.6
	실업	14.0	17.4	12.7	15.5
	비경황	24.5	27.5	25.4	23.9
비경황	취업	36.5	26.8	30.6	27.3
	실업	5.4	5.6	3.5	3.7
	비경황	58.1	67.6	65.9	69.0

자료 : 『청년패널2007 5차 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서 재인용

〈표 2〉 청년의 성별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 2007~2011년

(단위 : %)

	이전상태	이후상태	1차 → 2차	2차 → 3차	3차 → 4차	4차 → 5차
남성	취업	취업	91.6	90.9	94.1	94.4
		실업	2.8	4.0	2.5	1.9
		비경황	5.6	5.1	3.3	3.7
	실업	취업	64.9	48.8	65.5	64.6
		실업	13.9	18.3	10.6	17.1
		비경황	21.2	32.9	23.9	18.3
	비경황	취업	45.4	35.8	45.9	36.3
		실업	9.6	11.4	7.8	5.9
		비경황	45.0	52.7	46.3	57.8
여성	취업	취업	85.4	86.7	86.6	86.0
		실업	2.7	3.0	2.0	2.3
		비경황	11.9	10.3	11.4	11.7
	실업	취업	57.5	61.2	57.1	56.2
		실업	14.2	16.5	15.5	13.7
		비경황	28.3	22.4	27.4	30.1
	비경황	취업	33.4	23.9	25.6	24.6
		실업	4.0	3.7	2.1	3.0
		비경황	62.6	72.4	72.4	72.4

자료 : 『청년패널2007 5차 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서 재인용

9)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8년 3.2%였던 실업률은 2009년에 3.6%로, 실업자 수는 12만명이나 증가한다.

〈표 2〉는 이러한 청년 경제활동상태의 두 해 사이의 변화를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먼저 남자의 경우 취업에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자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나 청년에 있어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임을 보이고 있다. 실업이나 비경황에서 취업으로 이행하는 비율에서도 남성이 대체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여성들의 경우에 비경황에서 비경황, 즉 비경제활동상태에 지속하여 머무르는 비율이 남성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경력형성 초기부터 여자들의 경우 남자에 비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지체되거나 경력단절이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추이를 학력별로 살펴보았다(〈표 3〉). 먼저 두 개 연도 간 계속 취업상태에 머무르는 비율을 보면, 대학(원)졸, 전문대졸, 고졸 이하의 순으로 나타나 청년 내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안정성이 더 높음을 보이고 있다. 실업이나 비경황에서 취업으로의 탈출하는 비율에서도 4개 기간 평균에서 고졸 이하는 54.8%(24.4%), 전문대졸은 60.7%(31.9%), 대학(원)졸은 61.1%(35.9%)로 학력이 높을수록 미취업에서 취업으로의 이행이 더 용이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학력이 낮을수록 비경제활동상태 유지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초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청년들의 경우 여자일수록, 그리고 저학력자일수록 연도 간 취업유지 비율이나 미취업에서 취업으로의 이행비율이 낮아 고용이 불안정하고 반면에 비경제활동상태의 유지비율은 높아 노동시장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 청년의 학력별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 2007 ~ 2011년

(단위 : %)

	이전상태	이후상태	1차 → 2차	2차 → 3차	3차 → 4차	4차 → 5차
고졸 이하	취업	취업	86.5	86.2	87.7	88.4
		실업	3.2	3.7	2.7	2.2
		비경활	10.3	10.0	9.6	9.4
	실업	취업	66.7	41.5	50.0	61.1
		실업	9.1	14.6	16.7	13.9
		비경활	24.2	43.9	33.3	25.0
	비경활	취업	32.1	18.9	24.4	22.1
		실업	4.5	5.3	3.3	2.7
		비경활	63.4	75.8	72.3	75.2
전문대졸	취업	취업	88.8	89.1	90.3	89.9
		실업	3.1	4.0	2.7	2.0
		비경활	8.1	6.9	6.9	8.2
	실업	취업	58.0	62.0	64.3	58.5
		실업	18.8	14.0	10.7	19.5
		비경활	23.2	24.0	25.0	22.0
	비경활	취업	39.7	29.2	29.6	29.2
		실업	7.3	5.4	4.2	1.0
		비경활	53.0	65.4	66.1	69.9
대학(원)졸	취업	취업	89.9	90.2	91.3	91.0
		실업	1.8	2.8	1.6	2.1
		비경활	8.3	7.0	7.1	6.9
	실업	취업	58.7	57.9	66.3	61.5
		실업	15.6	21.1	12.0	14.1
		비경활	25.7	21.1	21.7	24.4
	비경활	취업	40.1	34.5	37.6	31.5
		실업	5.2	5.7	3.3	6.4
		비경활	54.7	59.8	59.2	62.1

자료: 『청년패널2007 5차 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서 재인용

## 나. 청년층 유형별 동태적 변화

그러나 이상의 분석은 단지 직전 연도와 다음 연도, 두 개년도간의 변화만을 비교분석한 것이어서 노동시장 이행의 동태(dynamics)를 온전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2007년 기준으로 응답유형별로 그 이후 4년간의 상태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청년들이 매년 어떠한 상태를 거치면서 경력을 형성하여 가나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YP2007은 매년 응답 유형을 중고등학생, 대학(원)생, 취업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sup>10)</sup>로 나누어 묻고 있다. 1-5차 조사 자료를 연계하되, 2007년 기준으로 중고등학생과 대학(원)생, 취업자는 다시 중소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로 구분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미취업자로 통합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청년패널2007 5차 조사 기초분석보고서』를 이용하여 2007년 1차 조사이후 2011년 5차 조사의 두 시점 간에서의 상태변화를 살펴보면<sup>11)</sup>, 2007년 당시 중고등학생은 73.8%가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생은 29.5%가 여전히 재학 중이고 나머지는 취업자나 미취업자로 이동하고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중 80%, 대기업 재직자 중 85%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여전히 재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으로부터 미취업으로의 이동은 18.0%, 대기업으로부터 미취업으로의 이동은 12.6%로 나타나고 있다. 미취업자의 경우 52.4%가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미취업 상태에 머물고 있는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39.8%). 미취업자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취업한 경우는 각각 13.4%, 39.0%이다.

〈표 4〉 성별 청년층의 상태 변화 : 2007년 → 2011년

(단위 : %)

			2011				
			중고등학생	대학(원)생	중소기업	대기업	미취업
2007	전체	중고등학생	2.9	73.8	8.4	5.3	9.6
		대학(원)생	0.0	29.5	31.7	23.8	15.1
		중소기업	0.0	2.1	66.2	13.7	18.0
		대기업	0.0	2.4	30.1	54.9	12.6
		미취업	0.0	7.8	39.0	13.4	39.8
	남성	중고등학생	2.8	75.7	6.4	4.8	10.2
		대학(원)생	0.0	35.3	27.1	25.0	12.6
		중소기업	0.0	1.9	73.9	16.8	7.3
		대기업	0.0	3.4	27.5	62.9	6.2
		미취업	0.0	14.0	49.3	16.6	20.2
	여성	중고등학생	2.9	71.5	10.8	5.9	8.8
		대학(원)생	0.0	20.9	38.4	22.1	18.6
		중소기업	0.0	2.2	58.5	10.6	28.7
		대기업	0.0	1.6	32.5	47.7	18.2
		미취업	0.0	3.9	32.5	11.4	52.3

주 : 5차 조사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 『청년패널2007 5차 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서 재인용

10) 엄밀하게는 통학을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된다.

11) 본 내용은 『청년패널2007 5차 조사 기초분석보고서』를 이용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성별로 보면, 취업자의 경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취업자에서 미취업자로 이동하는 비율 둘 다에 있어 여성이 훨씬 높으며, 미취업 상태를 지속하는 비율도 여성은 52.3%로 남성의 20.2%보다 32%p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동이나 대기업에서 대기업 유지율에서도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여기에서도 여성이 노동시장이행의 초기 단계에서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과 2011년 사이의 상태변화의 동학(dynamics)은 두 시점만의 상태만을 비교하여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예를 들면, 2007년 고교 재학생이 2011년에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취업이나 미취업을 거칠 수도 있고 바로 대학에 진학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는 2007년의 상태가 대학(원)생,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 모두에서 유사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모두 보기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에, 여기에서는 청년의 경력형성 경로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2007년에 (중)고교 재학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이행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5〉 (중)고교 재학생의 경력경로별 상태변화

(단위 : %)

2007년	경로	2011년	빈도	비율
(중)고교 재학	-	(중)고교 재학	62	3.1
	-	대 학생	1,297	64.8
	취업 또는 미취업	대 학생	161	8.0
	-	취업	119	5.9
		미취업	180	9.0
	대 학생	취업	138	6.9
		미취업	45	2.2
합계			2,002	100.0

먼저 〈표 5〉에서 2007년과 2011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 2007년에 (중)고교 재학생이었던 학생이 중간에 단절없이 바로 대학으로 진학한 경우는 64.8%, 중간에 노동시장에 진출하여 취업이나 미취업상태를 거쳐 대학에 진학한 경우는 8.0%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하고 고교 졸업 후 바로 노동시장이나 비경사로 이행한 경우는 14.9%(취업

5.9%, 미취업으로 이행은 9.0%), 그리고 고교 졸업이후 대학을 거쳐 노동시장이나 비경제활동로 이행한 경우는 9.1%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중)고교 재학생 경력경로별 상태변화의 남녀 비교

(단위 : %)

2007년	경로	2011년		
		상태	남자	여자
(중)고교 재학	-	중고교 재학	3.4	3.0
	-	대 학생	64.8	64.8
	취업 또는 미취업	대 학생	9.1	7.5
	-	취업	5.2	6.4
		미취업	13.7	6.4
	대 학생	취업	2.5	9.3
		미취업	1.3	2.8
합계			100.0	100.0

그러나 이를 남녀 간에 비교하여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먼저 〈표 6〉에서 보듯이 (중)고교에서부터 노동시장 진입이나 비경제활동 등 학습단절이 없이 바로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은 64.8%로 남자와 여자가 같아 최소한 고교 졸업 후 바로 상급학교 진학으로 이행함에서는 남녀 간 차이가 없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취업이나 미취업 상태를 거쳐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은 여자의 경우 7.5%로 남자(9.1%)보다 낮아 여자가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하고 일단 진학을 미룰 경우 노동시장이나 비경제활동 상태로 계속 머무르는 비율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비율(6.4%)은 남자(5.2%)보다 높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등 미취업 상태(6.4%)로 이행하는 경우는 남자(13.7%)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가지고 고졸자로서 노동시장으로 바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여자의 노동시장 성과가 남자보다 양호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남자의 경우 고교 졸업 후 군 입대나 대학진학 준비 등으로 비경제활동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으며<sup>12)</sup>, 또한 여자의 경우 취업한 일자리가 임금수준이나 고용안정성 등에서 양호한 일자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13)</sup>. 이에 대해서는

12) 우리나라 청년남성의 노동시장 이행과 성과 분석에서 병역변수는 크게 작용한다. 이는 그간 여러 연구에서 지적하여 왔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김태홍 양인숙 배호중 외(2013)에서는 남성의 20대 초반에 병역의무 등으로 인해서 여성취업자가 남성보다 훨씬 많고, 여성고용률 특히 대졸여성의 고용률이 남성보다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추후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청년여성들이 고교졸업 후 바로 대학을 거쳐 취업하는 비율은 9.3%로 남자(2.5%)보다 크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여자들이 고교졸업 후 바로 대학을 거쳐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경우 그 성과가 남자보다 양호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먼저 대학을 거쳐 실업이나 비경활로 이행한 경우도 여자가 2.8%로 남자(1.3%)보다 높아 청년여성의 노동시장 이행 지체가 대학졸업 이후에도 여전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남자들이 고교졸업 이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여 졸업하고 취업하는 비율이 여자보다 낮은 이유는 2007년 당시 (중)고교 재학생이었던 패널이 2011년에는 다수가 고졸이나 대학 재학 중 군 입대 등으로 미취업으로 빠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도 추후 별도의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 다. 경제활동참가 및 경제활동상태의 결정요인

### (1)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이제 청년여성만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참가와 취업의 결정 요인, 그리고 취업이 되었을 경우에도 어떠한 요인들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결정하는지를 분석하여 보기로 하자.

이를 위하여 2008년도 이후 4개년도의 자료를 pooling하여 어느 한 해라도 경제활동참가자(취업자, 미취업자), 취업자(임금, 자영자)일 경우를 대상으로 연령, 연령제곱, 가구소득, 가구원수, 아버지와 남편의 종사상 지위, 결혼여부, 연도더미를 독립변수로 한 이항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

13) 이를 지적하여 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표 7〉 고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변수명		추정계수	표준오차	Pr > ChiSq
상수		-30.4855	1.7426	<.0001
연령		1.6009	0.1288	<.0001
연령의 제곱/100		-2.2771	0.2425	<.0001
아버지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0.753	0.1049	<.0001
	고용주	-1.4949	0.2004	<.0001
	자영업자	-0.5189	0.1037	<.0001
	무급가족종사자	-0.0557	0.5002	0.9114
로그가구총소득		0.247	0.0593	<.0001
가구원수		-0.1207	0.0341	0.0004
미혼		3.0161	0.1895	<.0001
남편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1.3178	0.1801	<.0001
	자영업자	1.1661	0.2358	<.0001
연도더미	2009	-0.1712	0.099	0.0838
	2010	-0.2206	0.1	0.0274
	2011	-0.2362	0.1015	0.02
모형 검정	AIC	7364.61		
	SIC	7371.606		
	-2 LOG L	7362.610		
귀무가설 검정	Likelihood Ratio	2163.2022***		
	Score	2204.4458***		
	Wald	1352.1017***		

청년여성 중 고졸자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 미혼일수록, 결혼하였을 경우 남편이 임금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일수록 경제활동참가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가 임금근로자,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경제활동참가 확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2008년에 비하여 2009년, 2010년, 2011년에 경제활동참가 확률이 더 낮아지고 있다.

이는 대졸자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8〉에서 보듯이 나이, 가구총소득, 미혼, 남편의 종사상 지위가 임금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양의 관계를 보이거나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가 무직이 아니고 가구

원수가 많을수록 경제활동참가 확률은 낮아지고 있다. 아버지의 취업이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추후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가구원수는 일정하게 자녀수 등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경제활동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청년여성에 있어서는 학력에 따른 경제활동참가 행태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즉, 청년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에 학력변수는 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으로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향이 학력보다는 다른 개인적, 가족적 배경이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출산 후 복귀를 결정하는데 있어 학력이라는 인적자본의 정(+)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김지경(2003)의 연구 등과는 다른 결론으로서 청년여성과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에서 학력 요인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표 8〉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변수명		추정계수	표준오차	Pr > ChiSq
상수		-13.2027	2.8772	<.0001
연령		0.6264	0.2003	0.0018
연령의 제곱/100		-1.068	0.3494	0.0022
아버지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0.278	0.1058	0.0086
	고용주	-0.4995	0.1698	0.0033
	자영업자	-0.2046	0.1046	0.0504
	무급가족종사자	-0.1417	0.4573	0.7566
로그가구총소득		0.4865	0.0516	<.0001
가구원수		-0.2437	0.0332	<.0001
미혼		3.2418	0.1387	<.0001
남편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1.2537	0.1382	<.0001
	자영업자	0.5358	0.2342	0.0222
연도더미	2009	-0.0721	0.1057	0.495
	2010	-0.2054	0.1044	0.0491
	2011	-0.0777	0.1065	0.4659
모형 검정	AIC	6488.817		
	SIC	6495.498		
	-2 LOG L	6486.817		
귀무가설 검정	Likelihood Ratio	1321.45***		
	Score	1442.34***		
	Wald	1062.312***		

## (2) 취업결정요인

그렇다면, 노동시장에 진출할 경우 어떠한 청년여성들이 취업을 잘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 9>의 취업 결정요인에서 보면, 고졸 여성의 경우에 연령이 많을수록, 미혼일수록, 제조업과 서비스업일수록, 그리고 10-100인 미만과 300인 이상 사업장일수록, 결혼하였을 경우에는 남편이 임금근로자일수록 취업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동 참가 결정요인과는 달리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 가구소득이나 가구원수 등 가구적 배경은 취업에는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또한 2010년과 2011년에는 2008년에 비하여 취업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lt;표 9&gt; 고졸 여성의 취업 결정요인

변수명		추정계수	표준오차	Pr > ChiSq
상수		-15.8415	3.7179	<.0001
연령		0.5437	0.281	0.053
연령의 제곱/100		-0.4053	0.5318	0.446
산업 (기타 산업)	제조업	6.6642	0.3683	<.0001
	서비스업	6.2913	0.1961	<.0001
사업체 규모	10-100인 미만	0.824	0.2629	0.0017
	100-300인 미만	-0.0336	0.3743	0.9285
	300인 이상	0.657	0.3673	0.0736
아버지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0.2996	0.2338	0.2001
	고용주	-0.2751	0.4383	0.5302
	자영업자	-0.2676	0.2343	0.2534
	무급가족종사자	-0.1634	1.1016	0.8821
로그가구총소득		-0.1584	0.1219	0.1939
가구원수		0.085	0.0712	0.233
미혼		1.9764	0.4069	<.0001
남편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0.828	0.405	0.0409
	자영업자	0.4885	0.5475	0.3722
연도더미	2009	-0.2264	0.2291	0.323
	2010	-0.4463	0.2292	0.0515
	2011	-0.5285	0.2311	0.0222
모형 검정	AIC		7011.767	
	SIC		7018.763	
	-2 LOG L		7009.767	
귀무가설 검정	Likelihood Ratio		5708.5761***	
	Score		6841.6328***	
	Wald		1470.1447***	

대졸 여성의 경우에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미혼일수록, 제조업과 서비스업일수록, 그리고 10-100인 미만과 300인 이상 사업장일수록, 결혼하였을 경우에는 남편이 임금근로자일수록 취업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고졸자와 같다<sup>14)</sup>. 또한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나 가구원수 등 가구적 배경은 취업에는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는 점도 같다. 다만, 고졸 여성과는 달리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 사업체 규모가 100-300인 미만일 경우, 남편이 자영업자일 때도 취업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 대졸 여성의 취업 결정요인

변수명		추정계수	표준오차	Pr > ChiSq
상수		-11.8868	5.3045	0.025
연령		0.3975	0.3727	0.2862
연령의 제곱/100		-0.6234	0.6543	0.3407
산업 (기타 산업)	제조업	5.1111	0.3669	<.0001
	서비스업	5.0407	0.1361	<.0001
사업체 규모	10-100인 미만	1.9289	0.1959	<.0001
	100-300인 미만	0.8611	0.298	0.0039
	300인 이상	1.1755	0.2926	<.0001
아버지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0.0845	0.1891	0.6552
	고용주	0.0213	0.3008	0.9435
	자영업자	-0.0202	0.1895	0.9152
	무급가족종사자	-0.0914	1.0599	0.9313
로그가구총소득		0.2639	0.0881	0.0028
가구원수		-0.0855	0.0588	0.1455
미혼		1.7	0.281	<.0001
남편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0.7167	0.2967	0.0157
	자영업자	0.9607	0.4932	0.0515
연도더미	2009	-0.0262	0.1826	0.8858
	2010	-0.0844	0.1822	0.6432
	2011	-0.066	0.1841	0.7199
모형 검정	AIC	7564.843		
	SIC	7571.524		
	-2 LOG L	7562.843		
귀무가설 검정	Likelihood Ratio	5529.0367***		
	Score	4731.0903***		
	Wald	1929.7846***		

14)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하였듯이, 취업이나 경제활동상태 결정요인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내용이나 종사상 지위 등의 취업의 질적인 측면은 고졸자와 대졸자 간 다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 (3) 임금근로자 결정요인

〈표 11〉에서 고졸여성의 경우 어떠한 특징들이 임금근로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미혼일수록, 제조업과 서비스업일수록, 그리고 영세사업체보다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결혼하였을 경우에는 남편이 임금근로자일수록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결정요인과 같이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 가구소득이나 가구원수 등 가구적 배경은 임금근로자로의 취업에는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임금근로자로의 취업은 2008년에 비하여 2009년에는 어려웠으나 2011년에는 더 쉬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 고졸 여성의 임금근로자 결정요인

변수명		추정계수	표준오차	Pr > ChiSq
상수		-33.7554	4.0706	<.0001
연령		2.1007	0.2953	<.0001
연령의 제곱/100		-3.797	0.5463	<.0001
산업 (기타 산업)	제조업	7.4067	0.3661	<.0001
	서비스업	7.1438	0.2717	<.0001
사업체 규모	10-100인 미만	1.3739	0.2225	<.0001
	100-300인 미만	0.9474	0.3572	0.008
	300인 이상	1.5951	0.3438	<.0001
아버지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0.2496	0.2211	0.259
	고용주	0.0193	0.4959	0.969
	자영업자	-0.1	0.2182	0.6465
	무급가족종사자	0.6402	1.0429	0.5393
로그가구총소득		-0.1204	0.1288	0.3499
가구원수		0.0276	0.0656	0.6735
미혼		1.0526	0.4247	0.0132
남편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0.8163	0.4303	0.0578
	자영업자	0.1009	0.5017	0.8406
연도더미	2009	-2.4098	0.2299	<.0001
	2010	0.3936	0.261	0.1315
	2011	0.439	0.2651	0.0977
모형 검정	AIC		6422.486	
	SIC		6429.483	
	-2 LOG L		6420.486	
귀무가설 검정	Likelihood Ratio		5265.9512***	
	Score		6382.4015***	
	Wald		937.9884***	

대졸 여성의 경우 임금근로자 결정요인을 보면, 연령이 높고 미혼일수록, 제조업과 서비스업일수록, 그리고 영세사업체보다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결혼하였을 경우에는 남편이 임금근로자일수록 취업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졸자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나 가구총소득, 가구원수 등 가구적 배경은 취업에는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는 점도 고졸자와 같다. 적어도 청년여성에 있어서는 고졸 여성과 대졸 여성간의 임금근로자로의 취업 결정요인에 거의 차이가 없음을 보이고 있다.

〈표 12〉 대졸 여성의 임금근로자 결정요인

변수명		추정계수	표준오차	Pr > ChiSq
상수		-21.3013	4.2122	<.0001
연령		1.1512	0.2976	0.0001
연령의 제곱/100		-1.9623	0.5248	0.0002
산업 (기타 산업)	제조업	4.7443	0.2384	<.0001
	서비스업	4.5704	0.1387	<.0001
사업체규모	10-100인 미만	2.1537	0.1258	<.0001
	100-300인 미만	2.1565	0.212	<.0001
	300인 이상	1.9504	0.1843	<.0001
아버지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0.1821	0.1489	0.2214
	고용주	0.1335	0.255	0.6007
	자영업자	-0.1795	0.1499	0.2311
	무급가족종사자	-0.6713	0.6607	0.3096
로그가구총소득		0.1177	0.0731	0.1072
가구원수		-0.0653	0.0447	0.1444
미혼		1.162	0.2457	<.0001
남편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0.6327	0.2611	0.0154
	자영업자	0.1303	0.4533	0.7738
연도더미	2009	-2.8373	0.1561	<.0001
	2010	0.1387	0.1665	0.405
	2011	0.1111	0.1659	0.503
모형 검정	AIC		8062.178	
	SIC		8068.86	
	-2 LOG L		8060.178	
귀무가설 검정	Likelihood Ratio		5195.6683***	
	Score		4016.2615***	
	Wald		1663.7745***	

## (4) 자영업자 결정요인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여성들의 자영업자 결정요인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고졸 여성의 경우 어떠한 특징들이 자영업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면,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연령은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임금근로자 결정요인과는 달리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 가구소득이나 가구원수 등 가구적 배경은 일정하게 자영업자로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버지가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일수록 자영업으로의 취업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가구총소득이 높고,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자영업 취업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미혼일수록, 결혼하였을 경우에는 남편이 취업자일수록 자영업자로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결과하다. 또한 자영업자로의 취업은 2008년에 비하여 그 이후 모든 해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 고졸 여성의 자영업자 결정요인

변수명		추정계수	표준오차	Pr > ChiSq
상수		-17.1013	5.8003	0.0032
연령		0.2688	0.3964	0.4976
연령의 제곱/100		0.2024	0.7066	0.7746
아버지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0.8699	0.2838	0.0022
	고용주	-1.0983	0.5459	0.0442
	자영업자	-0.4985	0.2424	0.0397
	무급가족종사자	-12.6844	550.2	0.9816
로그가구총소득		0.5938	0.1906	0.0018
가구원수		-0.2593	0.0939	0.0058
미혼		1.2137	0.3921	0.002
남편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0.6771	0.3926	0.0846
	자영업자	1.5626	0.4271	0.0003
연도더미	2009	-1.1608	0.3453	0.0008
	2010	-0.6509	0.2918	0.0257
	2011	-0.8616	0.3138	0.006
모형 검정	AIC	1148.405		
	SIC	1155.401		
	-2 LOG L	1146.405		
귀무가설 검정	Likelihood Ratio	335.2811***		
	Score	591.8384***		
	Wald	217.6503***		



대출 여성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자영업자로의 취업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아버지나 남편이 자영업자일수록 자영업 취업가능성이 더 커지나 다른 종사상 지위의 경우에는 자영업 취업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미혼일수록, 가구 총소득이 높을수록 자영업자로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고졸 여성과 유사한 결과하다. 가구원 수는 영향을 못 미치고 있으며 또한 자영업자로의 취업은 2008년에 비하여 2009년에만 더 어려워지고 있다.

〈표 14〉 대출 여성의 자영업자 결정요인

변수명		추정계수	표준오차	Pr > ChiSq
상수		-28.2786	8.1031	0.0005
연령		1.27	0.5455	0.0199
연령의 제곱/100		-1.8136	0.9209	0.0489
아버지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0.2336	0.2259	0.3009
	고용주	-0.0105	0.3681	0.9772
	자영업자	0.4658	0.2037	0.0222
	무급가족종사자	-11.9716	363.3	0.9737
로그가구총소득		0.3691	0.1404	0.0086
가구원수		-0.0513	0.0679	0.4501
미혼		0.7442	0.333	0.0254
남편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0.513	0.3494	0.142
	자영업자	0.8395	0.4832	0.0823
연도더미	2009	-0.799	0.2444	0.0011
	2010	-0.2459	0.2065	0.2336
	2011	-0.194	0.2063	0.3472
모형 검정	AIC		1734.932	
	SIC		1741.613	
	-2 LOG L		1732.932	
귀무가설 검정	Likelihood Ratio		100.7208***	
	Score		91.7654***	
	Wald		82.0468***	

## 5. 요약 및 결론

고용률 70%라는 정책목표 달성의 관건이 여성과 청년의 고용률 제고에 달려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초기 경력형성경로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그 특징이 무엇인지, 특히 그러한 것들이 학력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청년여성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진입 및 이행을 동학적으로 살펴보고, 노동시장 이행 및 이행 시 경제활동상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 동안 두 해 사이마다의 이행을 분석한 결과, 전년도 취업의 경우 다음 해 취업으로 이어지는 정도는 90% 전후이고, 취업에서 실업으로는 평균 2.6%, 취업에서 비경제활동로의 이행은 8.2%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취업에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나,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에서 취업으로 이행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더 높다. 여성들의 경우에 비경제활동에서 비경제활동, 즉 비경제활동상태에 지속하여 머무르는 비율이 남성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력형성 초기부터 여성들의 경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두 개 연도 간 계속 취업상태에 머무르는 비율이 대학(원)졸, 전문대졸, 고졸 이하의 순으로 나타나 청년 내에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안정성이 더 높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에서 취업으로의 탈출률에서도 비슷하다. 반면에 학력이 낮을수록 비경제활동상태 유지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초분석 결과는 청년들의 경우에도 여성, 저학력자일수록 고용이 불안정하고 노동시장 이행이 지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2007년과 2011년 사이 청년들의 경제활동상태변화 과정을 동태적으로 살펴보면, 고교에서부터 노동시장 진입이나 비경제활동 등 학습단절이 없이 바로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은 남자와 여자가 같아 최소한 고교 졸업 후 바로 상급학교 진학으로 이행함에서는 남녀 간 차이가 없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취업이나 미취업 상태를 거쳐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은 여자의 경우가 남자보다 낮아 여자의 경우 일단 대학진학을 미룰 경우 노동시장이나 비경제활동 상태로 계속 머무르는 비율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비율은 남자보다 높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등 미취업 상태로 이행하는 경우는 남자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남자의 경우 고교 졸업 후 군 입대나 대학진학 준비 등으로 비경제활동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여자의 경우 취업한 일자리가 임금수준이나 고용안정성 등에서 양호한 일자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기에 고졸 여성의 고용성고가 남성보다 낮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또한 청년여성들이 고교졸업 후 바로 대학을 거쳐 취업하는 비율이 남자보다 높기는 하지 실업이나 비경활로 이행한 경우도 여자가 남자보다 높아 청년여성의 노동시장 이행 지체가 대학졸업 이후에도 여전함을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에서는 청년여성의 경우 고졸자나 대졸자 모두, 나이가 많을수록,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 미혼일수록, 남편이 임금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일수록 경제활동참가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가 임금근로자,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경제활동참가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 아버지의 취업이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추후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가구원수는 일정하게 자녀수 등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경제활동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청년여성에 있어서는 학력에 따른 경제활동참가 행태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청년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향이 학력보다는 다른 개인적, 가족적 배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에서는 학력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특징적인 결과이다.

취업 결정요인에서는, 고졸과 대졸 이상 모두에서 미혼일수록, 제조업과 서비스업일수록, 그리고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결혼하였을 경우에는 남편이 임금근로자일수록 취업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과는 달리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 가구원수 등 가구적 배경은 취업에는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다만, 연령과 가구총소득의 영향은 두 학력 간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임금근로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도 고졸자와 대졸자 간 똑 같이 나타나고 있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미혼일수록, 제조업과 서비스업일수록, 그리고 영세사업체보다 규모가 큰 사

업장일수록, 결혼하였을 경우에는 남편이 임금근로자일수록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 가구소득이나 가구원수 등 가구적 배경은 임금근로자로의 취업에는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여성들의 자영업자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는데, 다른 결정요인과 달리 고졸여성과 대졸이상 여성 간에 일정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고졸 여성의 경우 연령은 영향을 못 미치고 있으나 대졸여성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자영업자로의 취업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아버지나 남편의 종사상 지위나 가구원수가 자영업 취업에 미치는 영향도 고졸과 대졸 이상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혼일수록, 가구 총소득이 높을수록 자영업자로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은 두 학력 간에 같은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급학교 진학 등에서는 남녀 간 차이가 없으나 여성들의 경우 고졸졸업 후 미취업상태로 가거나 아니면 대학진학을 한 경우에도 졸업 후 경력형성 초기부터 노동시장 이행의 지체가 발견되고 있어 선제적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고교는 물론 대학 내에서의 성인지적인 진로와 취업 지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하나로서 특성화고 진로 상담센터나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등에서 교사-학생, 여학생 선후배를 엮는 진로 멘토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재학 중의 일 경험 프로그램 또는 인턴제 등에서도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고 여성 경력경로에 부응하는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성일반이나 중장년 여성 등에 맞추어져 있는 현행의 고용센터, 새일센터 등에서의 고용서비스를 청년여성에게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년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향이 학력보다는 다른 개인적, 가족적 배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여성들이 초기에 경제활동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력에 관계없이 다른 개인적·가족적, 사회적 장애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와 관련하여 누누이 지적되어 왔던 결혼, 출산과 육아(본 연구에서는 가구원수가 일정한 대리변수)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참가의 제약을 해소하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선진국을 볼 때 남편의 육아분담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제고하는 중요한 대안이기에 이

에 대한 제도적 확대와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 이외로 청년여성들의 취업준비를 지원하고, 초기의 경력단절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청년여성 맞춤형 교육훈련, 자격증 취득에 대한 지원, 집중상담 프로그램 등을 기존 관련 제도를 청년여성 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표 15〉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및 상태 결정요인(종합)

		경제활동참가		취업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고졸	대졸 이상	고졸	대졸 이상	고졸	대졸 이상	고졸	대졸 이상
연령		+	+	+	•	+	+	•	+
산업	제조업	해당 무	해당 무	+	+	+	+	해당 무	해당 무
	서비스업	해당 무	해당 무	+	+	+	+	해당 무	해당 무
사업체규모	10-100인 미만	해당 무	해당 무	+	+	+	+	해당 무	해당 무
	100-300인 미만	해당 무	해당 무	•	+	+	+	해당 무	해당 무
	300인 이상	해당 무	해당 무	+	+	+	+	해당 무	해당 무
아버지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	-	•	•	•	•	-	•
	고용주	-	-	•	•	•	•	-	•
	자영업자	-	-	•	•	•	•	-	+
	무급가족종사자	•	•	•	•	•	•	•	•
가구총소득		+	+	•	+	•	•	+	+
가구원수		-	-	•	•	•	•	-	•
미 혼		+	+	+	+	+	+	+	+
남편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	+	+	+	+	+	+	•
	자영업자	+	+	•	+	•	•	+	+
연도더미	2009	-	•	•	•	-	-	-	
	2010	-	-	-	•	•	•	-	•
	2011	-	•	-	•	+	•	-	•

주: -,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

## 참고문헌

- 김가을(2007), 「비취업 여성의 고용상태 변화와 결정요인: 생애주기별 분석」,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복순(2012. 6), 「여성노동시장의 고용구조」, 『노동리뷰』, 제87호, 한국노동연구원.
- 김영옥(1999), 『여성취업력의 동태적인 변화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옥(2006), 『여성노동시장의 양극화 추이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종숙·민무숙·김영옥·신선미·김난주·권소영(2013),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전략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태홍·김종숙(2002), 『여성 청년층집단의 취업이행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태홍·양인숙·배호중·금재호·이상준(2013), 『경제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Ⅲ) - 여성고용구조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문유경(2002), 『여성자영업자의 특성과 취업력』, 한국여성개발원.
- 박수미(2003), 「한국 여성들의 첫 취업 진입, 퇴장에 미치는 생애사건의 역동적 영향」, 『한국사회학』, 제36권 제2호, 145-174, 한국사회학회.
- 성지미(2001),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과 경력단절 가능성」,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345-364, 한국노동연구원.
- 신선미·민무숙·권소영·고혜원(2013), 『미취업 여성청년층의 취업준비활동 효과와 취업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오은진·민현주·김지현(2009), 「교육수준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와 취업선택 결정 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2권 제1호, 141-16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지현·김민영·장원섭(2010),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경로가 성공적인 노동시장 재진입에 미치는 영향: 학력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78권 제1호, 31~76.
- 정진성·장지연(2001), 「여성비임금근로자의 특성과 생애경력」, 『성곡논총』, 제2집 하권, 53-83.
- 주무현·강민정(2008), 「기혼여성, 경력단절의 경제적 효과와 직업선택」, 『고용이슈』 7월호, 52-75, 한국고용정보원.
- 황수경·장지연(2003), 「여성의 노동공급 및 여성노동정책」, 『한국의 노동: 1987-2002』, 한국노동연구원.
- Klerman, J. A. & Leibowitz, A(1999), "Job Continuity among New Mothers", Demography, Vol.36 No.2, pp.145-155.

## Abstract

# **The Determinants of Labor Market Transition of Young Women**

Soonhie Kang

This study analysed young women's early labor market transition and derived the policy implications using the Youth Panel survey data.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 found that the labor market transition of women was delayed from in the initial career formation through the two-year change analysis from 2007 to 2011. During the same period, the direct transition rate from high school to college or university was same between two sexes, but if women put off the going to college, they tended to stay longer as the economically inactive state than men. If young women transit immediately after high school graduation to the labor market, its employment rate was higher than that of men. It, however, does not mean that the women's employment performance is better than men's because young men tend to stay as the economically inactive state to prepare for the military service or the university entrance. Also, women's quality of employment may not good. The determinants of labor market transition of young woman was not different among the educational level. In both of high school or college graduate women,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was higher in the unmarried,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and the larger firms than others. The older, the unmarried, women in the manufacturing, service industries, and larger firms were more likely to be wage workers than others. Household backgrounds, however, such as father's employment status, household income,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did not affect the employment as the wage earners. Finally, in the determinants of the self-employed of the young women, unlike other determining factors, certain differences appeared among high school and college graduates. Age effect was not in

high school graduate women, but the older were more likely to be the self-employed in college graduate women. In the effects on being the self-employed, father's or husband's employment status,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were different between high school and college graduates. However, the result that the single, the higher household income were more likely to be the self-employed. was same in the both educational level, The conclusion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educational level does not appear in the most determinants analysis means that other individual or household's factors affect much more than educational factor. As the policy implication, I suggested the gender sensitive, especially young women customized career guidance and education, internship program, job training and education, and early prevention of career discontinuation program should be intensified.

**Keywords :** Young women, Early labor market transition, Determinants of economic activity status, Differences between educational level



